

광주 학동 5층건물 붕괴 … 버스 덮쳐 17명 사상

재개발 철거 중 무너져
100명 넘는 인력 투입
밤샘 매몰자 구조 작업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 내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도로에 정차한 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이날 밤 10시 현재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중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관련기사 2-6면>

지난 4월 동구 계림동 주택 재건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난 데 이어, 2개월도 못해 비슷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우리 사회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오후 4시20분께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해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상가 건물이 도로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버스승강장에 정차 중이던 54번 시내버스가 쏟아져 내린 수십t의 건물 잔해에 매몰됐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와 인근 5~6개 소방서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인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출동, 100명이 넘는 인력을 투입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였다.

무너진 건물은 지상 5층 상가건물로, 소방당국은 건물 철거가 진행중이었다는 점에서 철거 과정에서 붕괴됐는지, 재개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건물 뒤에 쌓아놓은 4층 높이의 흙더미가 건물쪽으로 밀려 건물 자체가 도로쪽으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인지 여부를 합동 감식을 통해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포크레인을 동원해 2명의 작업자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건물 철거 3~4 일 전에는 대규모 흙더미를 건물 옆에 쌓아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밤 늦게 사고 현장에 도착,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행안부는 자체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현장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했으며 청와대, 행안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한편, 광주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은 학동 일대 12만 6433㎡에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9개동(2282세대)과 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부터 철거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참사 현장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붕괴 참사 상가 건물 …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 위해 철거

9일 무너져내린 상가 건물은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을 위해 철거중인 건물이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은 학동 633-3 일대 12만 6433㎡ 면적에 아파트 19개동과 정비기반시설, 종교시설(4165㎡) 등을 조성하

는 사업이다. 아파트의 경우 지상 29층짜리 19개동을 지어 2282세대가 들어선다.

임대(39㎡)로 200세대를 공급하고 59~135㎡까지 2082세대를 분양 아파트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구와 조합체는 재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7000명의 인구 유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왔다.

재개발조합은 지난 2007년 8월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 2017년 2월에야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이듬해 7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부터 본격적 공사 착공을 위한 관리처분인가까지 10년 넘게 걸린 셈이다.

재개발은 도심 공동화와 함께 주택 노후화로 악화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부동산업계에서는 개발되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남광

주역을 중심으로 1, 2호선이 함께 지나는 '더블 역세권'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합원은 648명으로 재개발 사업 시공사는 현대 산업개발로, 지난해 7월부터 석면 제거 등 철거가 시작돼 공정을 90%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건물 철거는 한솔기업이 맡아 사실상 첫 철거일이었다. 한솔기업이 직접 철거한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철거가 진행됐다. 재개발구역 내 몇 안남은 인근 건물까지 포함하는 보상 과정을 거쳐 철거를 하려다 늦어졌다는 게 광주시와 건설업계 설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몇 안 남은 철거 대상 건물이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고등학교 장학금 '복불복'

▶ 6면

KIA 장학식, 자세 낮추고 구위 높였다

▶ 18면

신 팔도명물 - 마늘독립 '흉성 흉산마늘'

▶ 22면

촘촘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링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